

하나가 될 ‘연리지’를 꿈꾸며

‘편입생위원회’를 만나다



▶ 왼쪽부터 차례로 김성민(사북·16), 문희중(천문우주·13), 김지윤(정의·17), 박서진(간호·17)

우리대학교에는 편입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이들이 있다. 바로 편입생위원회다. 우리신문사는 편입생위원회 집행부(아래 집행부) 문희중(천문우주·13)씨·김지윤(정의·17)씨·김성민(사북·16)씨·박서진(간호·17)씨를 만났다.

Q 편입생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한 계기가 무엇인가.

김성민: 편입생으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공식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선배들로부터 그동안 “편입생들을 위한 공식기구를 만들고자 한 시도는 있었지만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편입생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자 집행부를 꾸리게 됐다.

김지윤: 고려대 편입학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고려대 편입생위원회 ‘KUTSC’(아래 쿠투츠)가 수험생들에게 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나눠줬다. 합격 전부터 공식기구의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대학교 내에도 편입생들을 보듬어줄 기구를 만들고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문희중: 나는 우리대학교 기존 재학생이다. 편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 학교에 다니면

서 오랫동안 단과대·학과 학생회에 몸담았다. 이런 학생회 경험이 편입생위원회 구성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박서진: 지난 2월 소규모로 진행된 ‘편입생 새로 배움터’(아래 새터)에 촬영 스태프로 참가했다. 당시 새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새터가 유익했다고 말해 뿌듯했다. 편입생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인준되면 학생들을 더욱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Q 현재 편입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지윤: 우리대학교에는 편입생들 간 정보 교류의 장이 부족하다. 편입생을 한데 모으는 기구가 없어 대부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로 알게 된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구조다. 또한, 학점인정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적대학 수강과목 인정 여부는 온전히 교수 재량에 달려있다. 과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수를 직접 만나야 하는데, 메일을 읽고 답장하지 않는 교수들도 있고, 아예 읽지 않는 교수도 있다. 이는 졸업 계획에 큰 차질로 이어지기도 한다.

Q 편입생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어떤 어려

움이 있다.

박서진: 기존 재학생들은 편입학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편입생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런 재학생들에게 편입생위원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Q 편입생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인준된다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하나.

김지윤: 모임은 단순 행사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공식기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자격을 갖게 된다. 학점인정 절차 확립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싶다.

박서진: 편입생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일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김성민: 단순 일회성 모임으로 여겨졌던 활동들을 편입생위원회 차원의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Q 고려대는 지난 2014년부터 쿠투츠가 활동하고 있다. 쿠투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쿠투츠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박서진: 쿠투츠는 5년째 총학 산하 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가 잘 정비돼 있다. 편입생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준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존재 자체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쿠투츠와는 학과 교류반처럼 교류하기 시작했다. 합동을 원전이나 아카리카, 입실렌티 같은 학교 행사뿐만 아니라 뒤풀이도 같이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김성민: 쿠투츠 사례를 많이 참고해야겠다고 느꼈다. 쿠투츠는 매년 새터를 진행하고 편입생 선후배를 연결해주는 ‘뽀선뽀후’ 제도를 시행하는 등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편입생들은 소속감과 애교심을 갖는다. 우리대학교 편입생위원회도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문희중: 쿠투츠는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투어나 응원오티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편입시험을 볼 때부터 안내 책자를 만들어

▶▶1면에 이어

‘좋은 총장’의 기준?
이사회 “의견 수렴 중”

한편, 이사회에서는 총장 자격 및 심사 기준(아래 심사기준)에 대해 학내 구성원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손영기 법인본부장은 “연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총장선출 기준을 합의하기 위해 각 구성원 대표와 전문가관이 모여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 대표와의 면담 일정이 끝난 후 교수·직원·학생·동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1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은 각 단과대 대표에게 심사기준을 공유하고 설문조사 홍보를 요청했다. 총학생회장 박요한(신학·16)씨는 “많은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도 “심사기준도 중요하지만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협의회 대표들도 이사회와 면담을 통해 심사기준을 공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노조협의회 의장 권미정씨는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사의 행보를 평가했다.

한편 이사회는 아직까지 교평과 비대위에게 심사기준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다. 조 비대위원장은 “심사기준이 아직 교수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다”며 “심사기준이 공유되면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장선출방식이 확정되는 7월 이사회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만이 남아있다. 이사회가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민주적 총장선출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연세대학교노동조합,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학교지부 신촌산학단지지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학교지부 원주산학단지지회, 연세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원주연세의료원지부가 포함된다.

**전 교수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추리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사회가 선출한 총장 후보에 대해 전 교수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2/3 이상의 의결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박제후 기자 bodo_hooya@yonsei.ac.kr

배부한다.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연세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박서진: 편입생위원회는 편입생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걱정보단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길 바란다.

김지윤: 지금은 편입생위원회가 공식기구가 아닌 준비단계에 있어 한계가 있다. 당장은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편입생위원회가 공식기구로 활동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새로운 편입생 후배들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편입생위원회는 더 발전할 것이

다. 그 발판을 만들고 싶다.

문희중: 학교본부와 교육권 문제를 논의하려면 각 단위 학생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편입생들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데 재학생들, 특히 학생대표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김성민: 편입생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인준받고 나면 위원회 이름으로 ‘연리지’를 생각하고 있다. 연리지는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하나처럼 얽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편입생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더 많은 연리지들을 심고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

글 박채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사진 정구윤 기자 guyoon1214@yonsei.ac.kr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 기술과 공감

지난 5월 30일, 백양관에서 ‘제2회 연세인권학술제’(아래 학술제)가 열렸다. 본 행사는 우리대학교 신춘캠 인권센터와 인권센터 학생위원인 ‘연세인권 앰배서더’(아래 앰배서더)가 공동 주최했다. 학술제는 학내에서 접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학내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함양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열렸다. 이번 학술제는 ‘학내 장애학우의 이동권 고찰’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술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었고 ▲개회인사 및 축사 ▲특강 및 질의응답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와 그 현실’ 발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술의 발전은 장애를 무의미하게 한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특강이 진행됐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수단의 변화와 이동권 보장 방법을 설명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 도입된 것은 휠체어 리프트(아래 리프트)다. 리프트는 기존 구조물에 추가적으로 설치만 하면 되는 가장 저렴한 방식의 설비다. 하지만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장애인들이 층간 이동권 투쟁을 진행한 결과, 서울 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임 변호사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설비가 아니다”라며 “갑스를

하거나 무거운 짐을 가진 비장애인들도 이용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이외에 저상버스 도입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5.3%의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임 변호사는 “저상버스를 타더라도 휠체어가 타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로 3시간씩 기다려야 해도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 또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 변호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실현은 모두의 이익임을 강조했다. 일례로 전동킥보드와 자율주행자동차를 들었다. 이는 각각 손목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됐지만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도, 배려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면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미흡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제

2부에서는 앰배서더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와 그 현실’ 발제를 진행했다. 장

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 해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인위)의 견해차 사례 소개가 주를 이뤘다. 앰배서더 김정수(교육·15)씨는 “현재는 ‘최소보장원칙’을, 국인위는 ‘적극적 보장’을 고수한다”며 “이런 입장 차는 저상버스 도입 결정에 관한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던 나인권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씨는 국가가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는 판례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로까지 귀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면 국인위는 교통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국인위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사업자에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했다. 앰배서더 김세영(문화인류·17)씨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인도주의적 시각이 아닌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30일, 백양관에서 학내 장애학우 이동권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제2회 연세인권학술제’가 열렸다.

발제가 끝난 후 ▲장애학우 이동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내 장애학우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정책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장애학생도우미 활동을 했었다는 참가자 A씨는 “장애학생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이미 다른 층에서 탄 학우들이 잘 비켜주지 않는다”며 학우들의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참가자 장정현(교육·16)씨는 “학우들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인지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학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학술제를 마치며 임 변호사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나누셔서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학술제를 기획한 앰배서더 김정수(교육·15)씨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학술제에 더 많은 학우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글 박채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사진 하광민 기자 pangman@yonsei.ac.kr